

광주 개학 연기 혼란, 비리유치원들이 앞장섰다

60곳 중 26곳이 비리 적발... 검찰 고발된 유치원들도 가담 막판 철회 불구 책임 논란... "교육청 감사 무력화 의도" 의혹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이번 개학연기 투쟁에 막판까지 힘을 보탤던 광주 사립유치원 10곳 중 절반은 지난해 공개됐던 비리유치원이거나 올초 교육청 감사 반대에 참여했던 유치원으로 드러났다.

한유총 광주지회는 중앙지부와 달리 신학기 첫날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심야에 '개학 연기 투쟁'을 철회했지만, 결과적으로 비리 유치원들이 앞장서 학부모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유총 광주지회는 개학 전날 학부모들이 이를 태우고 있을 때, 교육청 면담을 시

도하며 교육청 감사 유예를 노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3일 공개한 개학연기(1곳) 및 무응답(59곳) 유치원은 전체 159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37.7%인 60곳에 이른다.

이같이 개학 연기 또는 무응답 유치원 60곳 가운데 2013~2016년 시교육청 감사에서 예산·회계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이 26곳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의 교비부당 집행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유치원 시설 사용료를 원장이나 설립자에게

주거나 원장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를 교비로 집행했으며, 출근하지 않은 가족에게 월급을 주는 등 비리 유형도 다양했다.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여파로 진행된 올초 교육청 감사에 적극 저항해온 사립유치원 상당수도 개학연기 및 무응답 유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시교육청은 감사 인력 출입 저지, 자료 제출 거부 방식으로 감사를 거부한 유치원 11곳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이들 유치원 절반 이상이 정상 개학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서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했다. 감사를 거부하다 고발된 유치원뿐 아니라 연초 감사에서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의 교비부당 사용이 발각된 대형 유치원 일부도 막판까지 개학연기 투쟁에 가담한 것으로 시교육청은 보고 있다.

시교육청 안팎에서 비리유치원과 감사

거부 유치원, 연초 감사에서 회계 비리가 적발된 대형 유치원들이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에 적극 동조해 교육청의 감사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지난 3일 밤 한유총 광주지회의 개학연기 철회로 4일 광주 사립유치원 159곳이 모두 문을 열었지만, 전남지역에선 여수 흥익에는 유치원 한 곳이 개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회의 결정 반복으로 보육대란은 현실화하지 않았으나, 교육현장은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사립유치원들이 정부 정책이나 교육청 감사에 반발, 어린 아이를 불모 삼아 또다시 집단 휴원 카드를 꺼낼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의 엄정 대처 기조와 정치권·시민사회에서 쏟아지는 비난에 놀라

당장은 유치원 문을 열지만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전가할까봐 걱정인 학부모가 한둘이 아니다.

한편 한유총 광주지회는 "유치원은 공공적인 성격을, 그러나 그 출발과정에서 100% 개인 재산으로 출현했기 때문에 사유재산의 성격도 분명히 있다"며 개학연기 투쟁의 한 동기였던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광주지회는 "사립유치원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완전하게 국가로부터 출발한 국공립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회계시스템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개인의 투자를 보전해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에듀파인이 아닌) 사립유치원에 맞는 별도의 회계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 광산구 연산동 주민 발 갈다 녹슨 포탄 발견 신고

지난 3일 오전 10시 35분께 광주시 광산구 연산동에서 채소를 심기 위해 밭을 갈던 한 주민이 녹슨 포탄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길이 67cm, 지름 10cm에 달하는 포탄을 육군 상무대 EOD(폭발물 처리반)에 인계했다. 굳은 폭발 위험이 없는 불발탄으로 추정되는 녹슨 포탄을 수거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차량 타이어 잇단 파손 수사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 일대에 주차된 차량의 타이어가 잇따라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시 20분께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 한 공인중개사 앞 길가에 주차된 운모(여·46)씨 소유의 승용차 바퀴 4개가 펑크가 난 채 발견됐다. 바퀴는 날카로운 도구로 인해 지난 2일 오후 3시께부터 다음날 오후 3시 사이에 파손된 것으로 추정됐다.

같은 날 100여m 떨어진 한 음식점 앞에 주차된 황모(50)씨의 화물트럭의 앞·뒤 바퀴 4개와 보조바퀴 2개도 날카로운 도구로 찢려 펑크가 나는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차량을 파손시키기 위해 누군가 고의로 바퀴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인근 폐쇄회로 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찾고 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유치원 현안 뒷집만 진 광주시의회 비판

교사노조 "민주 일색 시의회 한국당 입장과 유사...자성 촉구"

광주시의회가 사립유치원 관련 현안에서 제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시민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색인 광주시의회가 지난해 전국을 뒤흔든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 파문과 신학기 집단 개학연기 선언 이후부터 수습까지 한결같이 뒷집만 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광주교사노조는 지난 3일 성명에서 "어린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와 광주시민의 기대와 달리, 사립유치원 문제에 관해서는 자유한국당 입장과 유사하지 않았는지 자성을 촉구한다"고 일갈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지금이라도 (의회) 조사권을 발동하고 사립유치원 지원 예산과 관련해 의회 입장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의 이런 입장은 사립유치원 이

슈와 관련해 광주시의회 의장과 소관 상임위원장이 침묵을 이어오거나 사실상 학부모 반대편에서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읽힌다.

앞서 감동한 광주시의회 의장(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감사를 거부하며 시교육청에서 천막농성 중인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장휘국 교육감을 잇따라 면담, 갈등 중재자를 자임하면서 뒷말을 날렸다. 교육청의 감사의지를 약화시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도.

김학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의 경우도 학원이 전복에 있기는 하지만 부인이 사립유치원을 경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한 의회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로 위원장 자격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유치원 가는 길 새학기 첫날인 4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한 유치원에 원생들이 등원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가 전날 밤 10시께 개학 연기 방침을 막판 철회했으나 학부모 혼란은 이날 오전까지 이어졌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백기 든 한유총, 개학 연기 투쟁 중단 선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 중단을 선언했다.

한유총은 4일 이덕선 이사장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유총은 "학부모들 염려를 더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소속 유치원들에게 "자체판단에 따라 내일부터 개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한유총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사립유치원 자율성 유지와 생존이 불가하다"면서 "교육부·여당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제대로 된 협의가 불가능했다"고 이번 사태 책임을 정부에 돌리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이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하는 등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 북구에서만 한달새 21회 절도...전과 12범 검거

광주북부경찰청은 4일 잠기지 않은 단독 주택을 주로 침입해 2월 한 달 동안 21회에 걸쳐 총 1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최모(33)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2시 10분께 광주시 북구 우산동의 한 주택 1층의 열려진 창문을 넘어 들어가 집주인 배모(74)씨가 잠들어 있는 동안 가방에서 현금 15만원을 훔친 혐의다.

최씨는 2월 한 달 동안 북구에서만 21회에 걸쳐 155만원 상당의 금품(현금, 패딩점

보성 야산 화재현장서 60대 남성 추정 시신 발견

4일 오후 2시 30분께 보성군 미력면 한 야산 화재현장에서 6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보성경찰에 따르면 산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불에 탄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인계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로 추정할 만한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퍼, 열쇠구멍)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전과 12범인 최씨는 지난해 7월 15일 출소한 뒤 일정한 주거지 없이 모텔과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여러 현장에 남겨진 신발자국을 분석해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달 25일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를 토대로 용의자 최씨를 검거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남친 생겨 귀국한다 하자 감금·폭행

말레이시아에서 함께 지내던 여성이 "남친친구가 생겨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감금하고 폭행한 20대가 소고랑.

4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박모(28)씨는 지난해 9월 20일 새벽 2시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 아파트 21층에서 최모(여·28)씨를 의자와 다리미로 수차례 때리고 속옷만 입은 채 무릎을 꿇도록 한 뒤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유포했다는 것.

말레이시아에서 불법 스포츠로 사무실을 운영하던 박씨는 지난해 7월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최씨를 한국에서 초청한 뒤 함께 지내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유포한 사진과 최씨의 말레이시아 현지 병원 진료기록부를 확보해 박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